

## 영어분열문의 본질

장 경 기  
영 어 영 문 학 과  
(1988. 4. 30 접수)

### <요 약>

이 논문은 분열문의 개념과 범위를 보다 엄밀하게 정의하고 규정하여 분열문의 본질을 더욱 타당성있게 기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의 전반부는 분열문에 대한 Jespersen(1933, 1909-1949, 1937), Quirk et al.(1972, 1985), Bolinger(1977), Givon(1979), Ek & Robot(1980)와 같은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부분으로, 후반부는 분열문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종합적인 주장을 전개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의 결과 드러난 우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분열문이란 be동사에 의해서 한문장이 강조부분과 전제부분의 두문장으로 나누어진 특수구문이다.
2. 분열문은 크게 *it*-분열문과 WH-분열문으로 분류되며 *it*-분열문의 대표적 유형은 *it* ~ *that*-분열문이고 WH-분열문의 대표적 유형은 *what*-분열문이다.
3. *it*-분열문의 *it*는 역행대용어이며 *t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병렬 문장의 연결사이다.
4. *what*-분열문의 *what*은 관계대명사이며 *what*-절은 종속절이다.
5. *it*-분열문과 *what*-분열문은 변형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보관계에 있다.
6. 분열문의 화용론적 용법은 화자가 강조부분을 전경화하고 전제부분을 배경화하여 강조부분에 청자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것이다.
7. 분열문의 용인가능성은 궁극적으로 담화상의 개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

## The Nature of The Cleft Sentence in English

Chang, Kyung-Key  
Dept. of English Lang. & Lit.  
(Received April 30, 1988)

### <Abstract>

The paper aims to define and characterize the notion and the scope of the cleft sentence and furthermore, to adequately describe the nature of the cleft sentence.

The first half of the paper examines the preceding studies such as Jespersen(1933, 1909—1949, 1937), Quirk et al.(1972, 1985), Bolinger(1977), Givon(1979), and Ek & Robat(1984). The second half of the paper presents our comprehensive arguments on the nature of the cleft sentence. Our arguments are as follows:

1. A cleft sentence is syntactically defined as a special construction where a single clause has been divided into two separate sections, a presupposed one and a focused one, each with its own verb.
2. A cleft sentence is categorized into two kinds such as *it*-cleft and WH-cleft. The general type of the former is *it*~*that*-cleft and the general type of the latter *what*-cleft.
3. The identity of *it* in *it*-cleft is a cataphor, and *that* in *it*-cleft is not a relative pronoun but a connective for paratactic clauses.
4. The identity of *what* in *what*-cleft is a relative pronoun, and *what*-clause is a subclause.
5. The relation of *it*-cleft and *what*-cleft is not syntactically transformational but functionally complementary.
6. The pragmatics of the cleft sentence is that the speaker draws the hearer's attention on the focus, foregrounding the focus and backgrounding the presupposition.
7. The general acceptability of the cleft sentence depends on the contextual plausibility

## I. 문제를 찾아서

영문법의 묘미를 따라 여행하다 보면 이른바 ‘분열문’(cleft sentence)이라 불리어지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구문을 만나게 된다.

- (1) a. It is the wife that decides.
- b. It is champagne I like best.

분열문이라는 용어는 영어의 *cleft sentence*를 일본에서 처음으로 번역하여 사용한 것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인 듯 한데, *cleft*가 *cleave*의 과거분사형이며 *cleave*의 일차적 의미가 둘로

\* 이 논문은 1986년 창원대학에서 열렸던 영어영문학회 경남지부 가을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최초의 관심은 경상대 김두식교수의 발표논문에 대한 부분적 회의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화용론적인 확장은 본 대학 강선영교수의 친절한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물론 본 논문에 나타난 지도 모르는 모든 과오는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나눔(cut into two)임을 고려할 때 *cleft sentence*에는 둘로 갈라진 문장이라는 암시가 들어있으나 '분열문'에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적절한 번역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 기득권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필요에 따라 두 용어를 적절히 사용하고자 한다. 우리가 우리의 관심사를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용어 자체에 대하여 언급하는 이유는 '둘로 나누어진 문장'이라는 개념이 앞으로의 우리의 논의에 있어 핵심을 이루는 중심개념이기 때문이다. 사실, 영어의 *cleft sentence*라는 용어도 Jespersen(1909-1947:147)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용어의 사용 뿐만 아니라 *cleft sentence*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Jespersen이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동시대의 Curme(1931)이나 Zandvoort(1957)에서는 *cleft sentence*와 같은 유형의 구문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볼 때 더욱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Jespersen(1933:358-359)에서는 *cleft sentence*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위에 제시한 (1a), (1b)의 구문을 관계대명사의 항목에서 다루면서 일반적인 관계문과 다른 점을 포착하고 있다. 즉 관계절은 선행사를 제약하는 특성이 있는데 반해, (1a)의 *that decides*는 앞에 나오는 *the wife*를 제약하지 않고 실제로는 문두에 오는 *it*에 속하며, 마찬가지로 (1b)의 *I like best*는 *champagne*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고 문두의 *it*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the relative clause thus does not restrict 'the wife' or 'champagne' but belongs really to it)

여기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하나는 왜 한 문장을 둘로 쪼개느냐 하는 문제요, 또 하나는 분열문 안의 한 절이 과연 관계절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가 흔히 영어교육현장에서 '*it~that*의 강조구문'이라 명명하고 관계절과 유사한 구문이지만 의미상으로 엄격하게 구분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상식적 설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여 분열문의 본질을 밝혀가는 과정 속에서 *it*와 *that*이 하 구문의 정체 및 분열문과 의사분열문(pseudo-cleft sentence)과의 관련성도 논의될 것이다. 먼저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순서로 II장에서 Jespersen(1933, 1909-1949, 1937)과 Quirk et al.(1972, 1985)를 주로 검토하고 Bolinger(1977), Givon(1979), Ek & Robot(1984)의 관련부분을 살펴본 다음 III장에서 분열문의 실체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밝히고 IV장에서 마무리 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의 검토

### 1. Jespersen(1933, 1909-1949, 1937)

Jespersen(1933:358)은 I장에서 제시한 (1a)의 의미는 'the wife is the deciding person'으로, (1b)의 의미는 'champagne is what I like best'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선행사를 제약하는 일반 관계절의 용법에서 나오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 특수구문의 정당성을 위해서 그는 두가지 증거를 들고 있다. 하나는 연결사 *that* 앞에 그 자체가 확정적(definite)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의 제약이 필요없는 성분이 올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기로 하자.

(2) a. It is *you* that must suffer for it.

b. It was *the battle of Waterloo* that decided the fate of Europe.

(2a)의 인칭대명사 *you*나 (2b)의 고유명사 *the battle of Waterloo*는 그 자체가 definite하여 뒤따라오는 절에 의해서 더 이상의 제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성분이며 따라서 선행사와 관계절이라는 관계로 파악될 수 없다. 더구나 의미상으로 볼 때도 이른바 분열문의 의미로 파악될 때만 자연스럽다. 즉 *that* 이하의 구문은 실제로 문두의 *it*에 속한다고 Jespersen은 보고 있다. 또한 다음의 예문은 속담으로서 분열문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으면 속담의 기능이 사라지는 흥미있는 예들이다.

(3) a. It is a wise child that knows its own father.

b. It is a poor heart that never rejoices.

Jespersen(1933)에서는 일단 표면구조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관계절의 구문으로 볼 수 없는 구문이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

Jespersen(1909—1949 : 147—178)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문장을 cleft sentence\*라고 부르면서 *it is*에 의해서 문장을 쪼개는 목적은 문장의 한 특정요소를 골라내어 청자의 주의(attention)를 끌고 또 대조(contrast)와 강조(focus)를 주기 위함이라고 쓰고 있다. 또한 *it*의 용법을 설명하는 가운데 cleft sentence의 *it*는 대명사로서의 *it* (anaphoric *it*), 예비요소로서의 *it* (preparatory *it*), 불특정요소로서의 *it* (unspecified *it*)의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요소로 다루고 있다.

Jespersen(1937 : 73—76)에서도 Jespersen(1909—1949)과 같은 맥락에서 cleft sentence를 논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이 구문의 음성학적 특징이 언급되고 있는데 연결사 *that*와 그 선행요소 사이의 멈춤이 없으며, *that*은 언제나 생략이 가능하고 *who*나 *which*보다 *that*을 더 선호한다고 말하고 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분열문을 영어의 엄격한 어순(SVO)이 갖는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며, 어순이 영어보다 덜 엄격한 언어인 독일어, 스페인어, 슬라브어에는 이런 구문이 널리 쓰이지 않음에 비해 영어, 불어, 스칸디나비아어 등에서는 두루 쓰이고 있음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검토한 Jespersen을 정리하면 cleft sentence의 본질적 특징은 바로 *it is*이며 이 구문은 영어의 어순과 관련되어 설명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과, 이 구문은 표면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관계절이 포함된 문장으로 분석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구문의 일반적인 연결사 *that*은 일단 관계대명사로 분석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 2. Quirk et al. (1972, 1985)

Quirk et al. (1972 : 951)은 cleft sentence를 절의 특정요소에 주제 및 초점의 두드러짐(thematic and focal prominence)을 가져다 주는 특별한 구조라고 보고, 이 강조된 부분은 대조적 초점(contrastive focus)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다음 문장에서 살펴보자.

\* 논의의 과정에서 용어사용의 어려움이 있다. 우리말의 “분열문”과 영어의 cleft sentence가 바로 대응이 되지 않으므로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cleft sentence는 Jespersen에게는 실제로 *it-cleft*이며 Quirk et al. 에게는 *it-cleft*와 *pseudo-cleft*가 모두 포함된다. 우리말의 “분열문”에는 결국에 가서는 *it-분열문*과 의사분열문이 포함되어 있고, 의사분열문의 대표적인 경우가 *what-분열문*이다.

- (4) a. John wore his best suit to the dance last night.  
 b. It was John  $\left\{ \begin{array}{l} \text{who} \\ \text{that} \end{array} \right\}$  wore his best suit to the dance last night.  
 c. It wasn't Jim, but John  $\left\{ \begin{array}{l} \text{who} \\ \text{that} \end{array} \right\}$  wore his best suit to the dance last night.

(4a)는 억양이 표시되지 않는 글(written form)일 때 어떤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무표적인(unmarked) 문장인데 비해, (4b)는 John이 강조되어 있는 분열문으로서 실제로 (4c)가 보여주듯이 Jim 혹은 딴 사람이 아닌 John이라는 대조적인 강조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Quirk et al. (1972 : 952-954)에서는 cleft sentence와 관계절이 포함된 문장의 구조적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다음의 예문이 들어있다.

- (5) a. I gave the water to the dog.  
 b. It was *to the dog* (which) I gave the water.  
 c. It was *the dog* (which) I gave the water to.  
 d. It was the dog to which I gave the water  
 e. It was the dog (which) I gave the water to.

(5b)는 (5a)의 *to the dog*이 강조된 분열문이며 (5c)는 *the dog*이 강조된 분열문이다. 이때 연결사 *which*는 생략이 가능하다. 한편, (5d)는 *which* 이하가 선행사 *the dog*을 수식하는 관계절을 가진 문장이며 (5e)는 (5d)의 *to*가 이동되지 않는 문장이다. (5d)는 전치사 *to*때문에 *which*가 생략되지 못하나 (5e)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의 생략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5b), (5c)의 *it*와 (5d) (5e)의 *it*의 성격은 전혀 다른 것으로서 구조의 유사성은 완전히 우연적인 것이다. 이 점은 단어강세(word stress)를 받는 부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에서도 확인되는데 즉 cleft sentence인 (5b), (5c)의 단어강세는 *dog*에 오고, 관계절이 포함된 (5d), (5e)의 단어강세는 *water*에 온다.

Quirk et al. (1972 : 954)에서는 이른바 의사분열문(pseudo-cleft sentence)을 다루고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6) a. You need a good rest most.  
 b. It's a good rest that you need most.  
 c. A good rest is what you need most.  
 d. What you need most is a good rest.

(6b)는 cleft sentence이며 (6c), (6d)는 pseudo-cleft sentence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정보는 *a good rest*이며 *what*이하는 명사절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what*절은 관계절로서 주어나 *be*동사의 코어로 나타나는 종속절이라는 점이다. 이 점은 cleft sentence의 *that*이하의 절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특이한 것이다. 의사분열문은 또 *what* 뿐만 아니라 *who*, *where*, *when*을 가진 절로 이루어진다. 다음은 몇가지 예문들이다.

- (7) a. *The police chief* was who I meant.  
 b. *Here* is where the accident took place.

- c. (In) *Autumn* is when the country side is most beautiful.  
 d. The person/one who spoke to you must have been *the manager*

위의 예문은 모두 의사분열문에 속하며 (7a)의 *the police chief*, (7b)의 *Here*, (7c)의 *Autumn*, (7d)의 *the manager* 등이 강조되고 청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의사분열문을 과연 특수한 구문으로 다루어야 할 언어학적 의의가 있는 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III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한편, Quirk et al. (1985 : 1384)에서는 강조되는 부분이 항상 새로운 정보인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있을 분열문의 화용론적 분석을 위해 매우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 (8) A : You should criticize his callousness.  
 B : No, it is his callousness that I shall ignore.  
 (9) A : You should ignore his dishonesty.  
 B : No, it is his callousness that I shall ignore.

(8)의 담화에서 A의 언급과 B의 응답을 살펴볼 때 cleft sentence 안의 강조 부분인 *his callousness*는 새로운 정보가 아닌 주어진 정보이며 *that*절에 나타나는 *ignore*가 새로운 정보이다. 또한 이 경우에는 *his callousness*가 앞에서 언급했던 주제적 두드러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9)의 담화에서는 A의 언급에 대한 분열문으로 나타나는 B의 응답을 살펴볼 때 *his callousness*는 분명히 새로운 정보이며 또한 A의 응답에 나오는 *his dishonesty*와 대조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서 앞서 언급한 대조적 초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우리의 관찰은 Quirk et al. (1972 : 951)의 담화 아닌 문장안에서의 주제 및 초점의 두드러짐과 대조적 초점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을 가능하게 해준다. 즉 분열문의 연결사 *that* 앞에 나오는 요소는 주제 및 초점의 두드러짐과 대조적 초점을 항상 그리고 동시에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담화 상황에 따라서 주제적 초점의 기능과 대조적 초점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그렇다면 초점의 기능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셈인데 이는 Jespersen (1909-1949)에서 언급하고 있는 청자의 주의를 끌어낸다는 기능을 포함한다고 본다. 이점에 대해서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Quirk et al. (1985 : 348-349)에서 *it*-분열문의 *it*의 정체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있다.

- (10) a. A : They lost the game.  
 B : Yes, so I hear. Isn't *it* a shame?  
 b. Isn't *it* a shame *that they lost the game*?  
 (11) a. A : Where did you first meet her?  
 B : *It* must have been here.  
 b. *It* must have been here *that I first met her*.

자연스런 대화 (10a)의 *it*는 바로 (10b)의 분열문의 *it*와 동일하고 그 구체적인 지시물은 *that*-절 임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자연스런 대화 (11a)의 *it*는 바로 (11b)의 분열문의 *it*와 동일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that*-절 임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문장을 넘어선 담화속에서의 분열문의 쓰임에서 *it*의 정체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아래의 예는 문장안에서 *it*의 정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 (12) a. I take *it* then *that you're resigning*.
- b. I take *it* is then *that your're resigning*.

일반적으로 (12a)의 *it*는 가목적어로, *that* 이하는 진목적어로 분석되고 있는 문장인데 이 (12a)를 (12b)와 비교해 볼 때 (12b)의 분열문의 *it*의 기능과 (12a)의 *that*의 기능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Quirk et al. (1985: 349)은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it*-분열문의 *it*를 cataphoric reference(forward coreference)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완곡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명사가 순행적 대용어(forward anaphor)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it*-분열문의 *it*는 역행적 대용어(backward anaphor)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점에 대해서 뒤에서 더 논의하기로 한다.

다음에는 *it*-분열문이 가지고 있는 몇가지 통사상의 제약을 살펴보기로 하자. Quirk et al. (1972, 1985)은 *be*동사가 포함된 다음의 예문을 들고 있다.

- (13) a. He is a genius.
- b. It's he/him that is a genius.
- c. It's a genius that he is.

(13a)의 주어가 강조된 (13b)는 좋은 문장인데 (13a)의 보어가 강조된 (13c)는 왜 약간 부자연스러운 표현일까? 통사적으로 *be*동사의 보어는 *it*-분열문의 초점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영어의 어순의 특징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즉 영어의 문장의 끝에 초점이 온다는 원칙(end-focus principle)에 따라 (13a)의 *a genius*는 이미 초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수구문을 사용하여 다시 강조하기에는 전체 문장의 길이 및 *be* 동사의 비중 등 전반적인 정보가치란 면에서 *it*-분열문 (13c)는 부담스러운 것이다. 결국 (13b)는 (13a)의 주어가 강조된 문장인데 주어란 일반적으로 강조되는 요소가 아니고 주제의 역할을 하는 요소가 오는데 담화상황에 따라서 강조의 초점을 통사적으로 나타내려는 화자의 동기에 의해서 (13b)의 *it*-분열문이 쓰이게 된다. 이때의 *he/him*은 주제 및 초점의 두드러짐이라는 역할을 한다고 우리는 본다. 물론 (13b)에서 *he* 대신에 *him*을 사용하는 것은 *It's I* 대신에 *It's me*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형식적인 용법이다. Akmajian(1970)에 의하면 *it*-분열문에 나타나는 인칭대명사의 격(case)과 동사에 나타나는 수(number)의 용법에 있어 지역방언(dialect)과 개인방언(idiolect)에 따라 여러가지 변이형이 쓰이고 있는데 이는 원래 분열문이 초점을 드러내기 위한 통사적 장치이면서도 구어적 용법으로 두루 쓰이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점은 궁극적으로 분열문의 용법이 통사적인 것에 국한되는 정태적인(static) 것이 아니고 담화 속에서 화자와 청자간에 미묘하게 작용하는 매우 동태적인(dynamic) 언어 현상으로 파악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Quirk et al. (1985)의 논의는 이러한 우리의 기본 입장을 위해서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고 하

졌다. Quirk et al. (1985)은 첫째, 분열문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고 가장 보편적인 *it*-분열문을 순분열문(cleft sentence proper)으로 분류하였으며, 둘째, *it*-분열문의 *it*는 *that*-절을 가리키는 역행대용어임을 시사하였음을 기억해 두고 분열문에 대한 화용론적 연구를 좀 더 검토해 보기로 한다.

### 3. Bolinger(1977), Givon(1979), Ek & Robot(1984)

Bolinger(1977 : 71)는 지칭되는 정보에 대한 사전의 기초(prior basis)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cleft sentence가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Cleaving a sentence that is totally lacking in a prior basis for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s difficult to do) 그의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하자.

(14) A : When will we'll know ?

B : It's tomorrow that we'll know.

(15) A : When will you tell me ?

B : \*It's tomorrow that I'll tell you.

Bolinger(1977 : 71)에 의하면 (14)의 담화가 정상적인 이유는 아는 시간(the time of knowing)이 이미 확립되어 있음(previously established)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 반면에 (15)의 담화는 사전의 기초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물음에 cleft sentence로 응답했기 때문에 부자연스런 담화가 된 것이다. 토박이의 직관이 결여된 우리로서는 Bolinger의 참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나 (14)의 담화가 정상적인 이유는 (14)의 화자 A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14)의 화자 B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B의 *it*-분열문의 사용이 가능한데서 찾아야 한다고 우리는 판단된다. 다시말해서 (14)의 화자 B는 대화의 앞뒤 상황으로 미루어보아서 화자 A가 “we know soon” 정도의 의식(consciousness)을 가지고 묻고 있다고 판단하고서 B는 cleft sentence로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비교해 볼 때 (15)의 화자 A의 질문 내용은 매우 즉흥적이며 사실상 화자 B가 화자 A에게 뭔가를 알려줄 지의 여부도 확실치 않는 상황이며 따라서 화자 B가 cleft sentence로 응답하기가 부적절한 것이다. 다시 아래의 대화를 통해서 Bolinger의 사전의 기초작업 확립이론을 좀 더 검토해 보자.

(16) A : Who came ?

B : It was John, [who came]

(17) A : Who else came ?

B : \*It was Mary, [who else came].

(18) A : Who else came ?

B : Mary.

A : who else(did you say) came ?

B : It was Mary[who else came]

(16)의 화자 A는 “Someone came”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그 someone이 구체적으로 누구인



지 알고자 질문하고 있으며 이 점을 화자 B가 이해 또는 의식하면서 *cleft sentence*로 응답하고 있다. 이어 비해서 (17)의 담화 상황은 화자 A는 그밖에 다른 사람이 왔는지 여부조차 모르면서 던지는 즉흥적인 질문이며 따라서 화자 B도 *cleft sentence*로 응답할 수 없다. 그러나 (18)을 (17)과 비교해 볼 때 화자 A가 잘 알아듣지 못하여 다시 질문하는 경우에는 이미 (17)이 가졌던 즉흥성이 사라지고 (16)의 사전의 기초가 확립된 셈이다. 이러한 반복 질문(reclamatory question)에 대해서 화자 B는 *cleft sentence*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Bolinger의 주장은 *it*-분열문의 *it*의 성격에 대한 중요한 시사를 해준다고 판단된다. 즉 Jespersen이나 Quirk et al.의 주장처럼 *it*나 *that*-절을 가리킨다는 점만으로는 Bolinger가 보여주는 부자연스런 문장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Bolinger가 말하는 *prior basis*에 의해서 화자가 이미 *it*의 실체를 인식하고 있을 때에만 *it*-분열문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일단 우리는 추정해 본다. 이 점에 대해서 후에 더 논하기로 한다.

Given(1979 : 217)은 *it*-분열문을 WH- 의문문과 마찬가지로 강조된 부분과 전제된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19) a. It's John who left,  
           FOCUS/PRESUPPOSED  
           It was John, (the one) who did it.
- b. Who left?  
           FOCUS/PRESUPPOSED  
           who(was it) (the one) who did it?

(19a)의 *cleft sentence*와 (19b)의 WH-의문문이 공통적으로 SVO언어의 일반원칙을 어기면서 강조된 부분이 왼쪽으로 이끌리고(left-attraction) 있는데 이 강조부분은 주제적이며 동시에 강조적이라고 Givon은 쓰고 있다. 이는 바로 Quirk et al.의 *thematic prominence*와 *focal prominence*를 동시에 준다는 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여기서 (19a)를 다시 화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화자는 이미 누가 떠났는지를 알고서 그 사람이 바로 John임을 청자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it*-분열문을 사용하고 있으며 (19b)의 WH-의문문의 화자는 이미 누군가가 떠났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실제로 누구인지 알고자 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강조되는 부분은 신정보이고 전제되는 부분은 구정보라고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할 듯 하다. Quirk et al. (1985)에서 이미 우리는 강조부분이 신정보일 수도 있고 구정보일 수도 있음을 보았듯이 우리는 전제부분도 마찬가지로 구정보 또는 주어진 정보라고 단순히 규정하는 것은 언어 현상에 대한 성급한 단순화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어떤 한 상황에서 화자가 “who came?”하고 질문할 때 *who*도 신정보이고 *came*도 신정보일 수 있다. 다시말해 처음 청자의 의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신정보는 생략이 불가능하며 만일 생략하면 의사의 불통을 가져온다. 이에 반하여 주어진 정보 또는 구정보는 생략이 가능하며 또한 생략된 부분의 회복도 가능하다. “who came?”에 대하여 “It was John who came”하고 응답했을 때 “It was John”, 특히 John이 신정보이고 “who came”은 구정보이며 따라서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It was John” 만으로도 응답이 된다. 여기서 문제는 *it*-분열문의 강조된 부분을 따라오는 절이하가 항상 구정보인가 하는 점이다.

과가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it*-분열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핵심적이라 판단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주장을 펴고자 한다. 먼저 *it*-분열문의 *it is* 다음에 강조부분(*focused part*)이 오고 다음의 절은 전제부분(*presupposed part*)이라고 Givon(1979)은 주장하고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참이라고 받아 들여지고 있다. 한편 Ek & Robat(1984)는 *it*-cleft sentence는 신정보와 구정보로 나누어진다고 본다. 이는 Givon(1979)의 주장과 다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강조부분은 신정보이고 전제부분은 구정보라는 관점은 널리 받아 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반적 견해가 적어도 분열문을 논하는 데에 있어서는 들어 맞지 않음을 보이고자 한다. 먼저, 전제(*presupposition*)의 개념은 원래 문장 중심의 논리적, 의미론적 개념으로 쓰여왔다.

- (22) a. It is his callousness that I shall ignore.  
 b. It is not his callousness that I shall ignore.

위 (22a)가 “I shall ignore something”을 전제하는 논리적 근거는 (22a)와 부정문 (22b)에서 공히 “I shall ignore something”이 참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화자가 “I shall ignore something”을 전제로 할 때 이를 바로 구정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화자에게 구정보라는 점이 청자의 지식 또는 담화시의 의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이러한 문제는 필연적으로 담화속에서 설명되지 않으면 안된다. 앞장의 Quirk et al. (1985)을 논하면서 제시된 대화속에서 좀 더 검토해 보자.

- (23) A : You should criticize his callousness.  
 B. No, it is his callousness that I shall ignore.
- (24) A : You should ignore his dishonesty.  
 B : No, it is his callousness that I shall ignore.

(23A)의 대화를 보면 *it*-분열문의 강조부분 *his callousness*는 A가 이미 언급한 구정보이며 *that*-절은 처음 소개되는 신정보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결과는 강조부분이 신정보이고 전제부분이 구정보라는 일반적인 관점과 정반대임을 보여준다. 한편 (24)를 보면 강조부분 *his callousness*는 담화에 처음 등장하는 신정보이고 *that*-절은 구정보로써 일반적 견해와 일치한다. 이러한 증거는 신정보와 구정보의 여부는 담화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편 (23)과 (24)의 *it*-분열문은 담화의 시작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만일 *it*-분열문이 담화의 시작에 나오면 구정보와 신정보의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설득하려는 담화, 예를 들어 소설의 시작 또는 사건의 설명 등에 나온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5) It was in Seoul that they first met each other.

이 문장이 담화의 시작에서 쓰일 수 있는데 강조부분 *in Seoul*이나 *that*-절이 모두 새로운 정보이다. 다시 말해 청자는 처음 듣는 정보이다. 그러니까 구정보는 없는 셈이다. 이 증거로 볼 때도 강조부분은 신정보이고 전제부분은 구정보라는 등식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강조부분이란 구체적으로 담화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가 우리의 관심사

이다. II장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Jespersen(1909—1949)은 청자의 주의를 끌고 대조와 강조를 나타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Quirk et al.(1972)은 주제와 초점의 두드러짐을 가지며 대조적 초점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또 Givon(1979)은 이 강조부분은 주제적이며 동시에 강조적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매우 유사한 견해에 비추어 이 분열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즉 강조부분은 화자가 청자의 주의를 끌려고 하는 초점이며 이 초점은 담화 상황에 따라 주제적인 경우와 대조적인 경우로 나누어지며 양자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앞서 제시한 (23)의 강조부분 *his callousness*는 주제적 초점이며 (24)의 강조부분 *his callousness*는 대조적 초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때는 구정보는 주제적 초점으로 나타나고 신정보는 대조적 초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예문(25)와 같이 강조부분과 전제부분이 모두 신정보일 때의 강조부분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는가? (25)의 *in Seoul*은 분명히 화자가 청자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부분이지만, 그 성격이 주제적 초점인지 대조적 초점인지는 분명치 않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어느 쪽이라 말할 수 없는 경우이다. 다만 화자는 *in Seoul*을 전경화(*foregrounding*)하고 *that*-절을 배경화(*backgrounding*)함으로써 계속 이어지는 담화 내용과 연관지으려는 의도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it*-분열문은 특정요소의 강조용법이므로 전체적인 담화상황이 그 강조용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Bolinger(1977)는 사전의 기초라고 표현했고, Ek & Robat(1984)은 화맥상의 개연성이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it*-분열문의 *it is* 다음에 오는 요소는 의사소통상의 관심의 중심이 된다고 본다.

### 3. *what*-분열문의 특징

우리는 지금까지 분열문을 논의해 오면서 *it*-분열문과는 달리 *what*-분열문은 특수구문으로 다룰 언어학적 의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 이유는 첫째, *what*-절이 일반적인 관계절에 속하며 같은 기능을 가진 WH-절의 하나라는 면에서 그러하며, 둘째, *what*-분열문의 용법에 있어 강조부분이 무생물의 NP 및 VP와 S라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면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WH-분열문이 *it*-분열문과 마찬가지로 *be*동사를 중심으로 특정요소의 강조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what*-분열문이 생산적으로 쓰인다는 면에서 또 분열문의 용법상 VP의 강조라는 그 독특한 일면에서 WH-분열문의 대표적 구문으로 대접받아 왔다. 특히 현대 변형문법에서 주로 *it*-분열문과의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절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what*-분열문의 음성학적 특징은 *what*-절이 전제부분이므로 강세를 덜 받고 *be*동사 다음에 오는 강조부분이 강세를 받는다는 일반적인 것이다.

*what*-분열문의 통사론적 특징은, 우선 *what*-절이 관계절 중 명사절이며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이며 이 절은 *be*동사의 주어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be*동사의 보어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it*-분열문의 *that*-절이 병치적인데 비해 *what*-분열문의 *what*-절은 종속절로 나타난다. 한편 *what*-분열문은 동사의 강조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Quirk et al.(1972 : 954)은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 (26) a. What he's done is (to) spoil the whole thing.
- b. What John did to his suit was (to) ruin it.

이 문제는 *it*-분열문이 대화의 시작이나 글의 시작에서 사용될 수 있느냐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논하기로 한다.

한편 Givon(1979 : 248)은 주석에서 cleft sentence의 강조 부분을 뒤에 따라 나오는 절이 제한하거나 그 범위를 좁히지 않는다는 면에서 관계절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영어와는 달리 SOV언어에서는 cleft sentence나 pseudo-cleft sentence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Jespersen의 어순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와 유사한 것이다.

Ek & Robot(1984 : 416-419)은 몇가지 점에서 우리의 주의를 끈다. 먼저 cleft sentence를 정의하기를 한 문장을 신정보를 가진 부분과 구정보를 가진 부분의 두 절로 나눈 결과라고 보고 있다. (a cleft clause is the result of splitting up an underlying clause into a part containing new/main information and a part containing given information) 이를 앞서 다룬 Givon의 분석과 비교해 보면 Givon의 강조부분은 신정보이고 전제부분은 구정보가 된다는 이론이 되는데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Ek & Robot은 강조부분 다음의 절이 종속절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점도 의견을 달리 한다. 관계절이 아니라면 이 절은 수직적(hypotactic) 관계가 아닌 수평적(paratactic)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한편 그들은 cleft sentence에 따르는 보다 근본적인 의미론적 제약(우리의 화용론적 제약)으로서 화맥상의 개연성을 들고 있다. (contrastive focal prominence and the accompanying division of the message into new and given information should be *plausible in the context*)

- (20) ? a. It was *softly* that John spoke to his wife.  
 b. It was *bitterly* that John spoke to his wife.

(20a)가 부자연스런 표현인데 반해 (20b)는 자연스런 표현이 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 부인에게 말하는 태도가 *softly* 하다는 것은 너무 일반적이어서 새로운 정보로서 강조되기에 어울리지 않으나 *bitterly*는 부부사이의 악화에서 올 수 있는 한 상황을 충분히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정보로서 강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바로 화맥상의 개연성(contextual plausibility)에서 찾아야 한다. 이 개념은 Bolinger의 사전의 기초작업과 유사한 것으로 우리는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관찰로 미루어 볼 때 cleft sentence가 일차적으로 무표구문의 특정 요소를 강조하기 위한 통사적 장치이면서도 실제적 상황이 주는 화용론적 제약을 엄격히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III. 분열문의 실체

#### 1. 분열문의 정의와 범주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이제 분열문을 가능한한 엄격히 정의하고 범주화하기로 하자. 이를 위하여 먼저 대표적인 분열문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이미 앞에서 언급된 예문이 중복될 수도 있다.

(21) a. It is John  $\left( \begin{array}{c} \text{that} \\ \text{who} \\ \phi \\ * \text{which} \end{array} \right)$  collects snuffboxes.

[*John* collects snuffboxes.]

b. It's Uncle Bill  $\left( \begin{array}{c} \text{whose} \\ * \text{that} \\ * \text{which} \\ * \phi \end{array} \right)$  address I lost,

[I lost *Uncle Bill's* address.]

c. It is champagne  $\left( \begin{array}{c} \text{that} \\ \text{which} \\ \phi \end{array} \right)$  I like best,

[I like *champagne* best.]

d. It is foolish  $\left( \begin{array}{c} \text{that} \\ * \text{which} \end{array} \right)$  I call it,

[I call it *foolish*.]

e. It was because he was ill  $\left( \begin{array}{c} \text{that} \\ \phi \\ * \text{which} \\ * \text{why} \end{array} \right)$  we decided to return,

[We decided to return *because he was ill*.]

f. It was in September  $\left( \begin{array}{c} \text{that} \\ \phi \\ * \text{which} \\ * \text{when} \end{array} \right)$  I first noticed it,

[I first noticed it *in September*.]

g. It's a good rest  $\left( \begin{array}{c} \text{that} \\ \text{which} \\ \phi \end{array} \right)$  you need most,

[You need *a good rest* most.]

h.  $\left( \begin{array}{c} \text{What} \\ * \text{That} \end{array} \right)$  you need most is a good rest,

[You need *a good rest* most.]

i. A good rest is  $\left( \begin{array}{c} \text{what} \\ * \text{that} \end{array} \right)$  you need most,

[You need *a good rest* most.]

j. A good rest is the thing  $\left( \begin{array}{c} \text{that} \\ \text{which} \\ \phi \\ * \text{which} \end{array} \right)$  you need most.

[You need *a good rest* most.]

k. The police chief was  $\left( \begin{array}{c} \text{who} \\ * \text{what} \\ * \text{that} \end{array} \right)$  I meant.

[I meant *the police chief*.]

l.  $\left( \begin{array}{c} \text{The one who} \\ \text{who} \\ * \text{what} \end{array} \right)$  I meant was the police chief.

[I meant *the police chief*.]

m. Here is  $\left( \begin{array}{c} \text{where} \\ * \text{what} \\ * \text{that} \end{array} \right)$  the accident took place.

[The accident took place *here*.]

n.  $\left( \begin{array}{c} \text{The place where} \\ \text{Where} \end{array} \right)$  the accident took place was *here*.

[The accident took place *here*.]

먼저 위의 자료가 보여주는 몇가지 일반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열문은 위의 자료에서 보여주는 중괄호 안의 무표구문의 특정 요소를 강조하기 위하여 be동사에 의해서 두 문장으로 나누어진 유표구문(marked sentence)이다. be동사에 의해서 분리된다는 사실은 모든 분열문의 공통적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II장에서 다룬 어느 학자나 후학들도 심각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 같다. be동사의 이 독특한 기능은 영어의 어순과 관련지어 설명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보는데 뒤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21a)–(21g)의 *it*-분열문과 (21h)–(21i)의 *what*-분열문 뿐만 아니라 (21j)–(21n)의 분열문도 be동사에 의해서 강조된 부분과 비강조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점이다. 다만 *it*-분열문의 경우에는 실제로 *it*가 가리키는 부분이 강조요소 다음에 위치한다.

둘째, *it*-분열문의 연결사는 *that*이 가장 일반적이거나, 소유격으로 나타나는 (21b)를 비롯하여 (21a)–(21c)는 형태상으로 관계대명사의 성(gender)과 격(case)에 일치한다. 한편 (21e)–(21f)는 관계부사와 유사하면서도 WH-어휘는 쓰이지 못하고 *that*만 사용되고 있다. 또한 (21d)는 보어가 강조된 경우로서 혼한 경우는 아니지만 *that*만 쓰인다. 이러한 증거로 미루어볼 때 *it*-강조구문에 사용되는 연결사는 *that*이 가장 일반적이며 그 기본 동기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that*의 성격에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더구나 이 *that*은 흔히 생략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셋째, 의사분열문은 *it*-분열문을 제외한 (21h)–(21n)의 문장이며 *that*-분열문은 의사분열

문의 한 일반적인 경우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때의 *what* 뿐만 아니라 모든 연결사는 관계대명사 혹은 관계부사이다. 이는 *it*-분열문의 연결사가 관계대명사 혹은 관계부사가 아닌 것과 비교하면 크게 다른 것이다. 우리는 *what*-분열문이 동사구를 강조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명사는 무생물만 강조할 수 있는 제약이 있고 그 자체를 *the thing which*로 항상 대치 가능하므로 *it*-분열문과는 달리 특수한 구문으로 다루어야 할 지 의문이다. 만일 특수구문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면 (21k), (21l)의 *who*나 (21m), (21n)의 *where*도 같은 대접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관찰을 근거로 하여 “분열문이란 문장의 특정요소를 강조하기 위하여 *be*동사를 사용하여 두 문장으로 나눈 문장”이라고 정의한다. 이 분열문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특수구문은 *it is*로 시작하는 *it*-분열문이며, *it*-분열문이 아닌 강조구문으로서 관계절이 포함된 모든 강조구문을 의사분열문이라 규정하고 *what*-분열문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 2. *it*-분열문의 특징

먼저 음성학적 특징은 대체로 두가지로 요약하여 말할 수 있다. 하나는 Jespersen(1937 : 73-76)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it*-분열문의 강조부분과 연결사 사이에 쉼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통사적으로 연결사의 생략현상과 관련지어져 있는 듯하다. 또 하나는 Quirk et al. (1972 : 952-954)에서 보여주듯이 강조부분이 단어 강세를 받는다는 점이다. 이 현상은 구조적인 유사성을 가진 관계절의 선행사가 단어강세를 받지 않는다는 면에서 *it*-분열문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본다.

*it*-분열문의 통사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it*의 정체에 대해서 Jespersen (1933)은 *that*-절이 *it*에 속한다고 주장했고, Jespersen(1909-1949)에서는 *it*를 기존의 어느 용법에도 속하지 않는 독특한 것으로 파악했음을 II장에서 우리는 언급하였다. Quirk et al. (1985)는 *it*가 역행대용어임을 완곡하게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Bolinger(1977)나 Givon (1979)에서 밝히고 있는 분열문의 담화상의 용법과 비교해 볼 때 *it*-분열문의 *it*는 바로 뒤에 오는 절을 가리키는 대명사 즉, 역행대용어라고 우리는 규정하고자 한다. 이 *it*-분열문은 *be*동사의 다음에 강조성분을 두어서 영어 어순상의 문말강조규칙을 준수하면서 *it*의 실제적인 내용은 *that*-절로 나타난다. 이때 *it*-절과 *that*절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 놓이는데 이는 외치현상(extraposition)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절에서 밝혔듯이 연결사는 *that*이 가장 일반적인데 그 본질적 동기는 관계대명사의 속성과 관계부사의 속성을 동시에 가진 연결사가 바로 *that*이라는 점에 있다고 추정된다. 실제로 영어에서 *that*의 쓰임은 매우 광범위하다. 이 *that*이 흔히 생략될 수 있는 특징도 있다.

*it*-분열문의 의미론적 특성은 앞장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that*-절로 나타나는, 강조요소의 후행절이 그 강조요소를 제한하거나 꾸미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점이 바로 형용사절로 쓰이는 관계절의 용법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다.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definite한 성질을 가진 고유명사나 인칭대명사가 *it*-분열문의 강조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

*it*-분열문의 화용론적 용법을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벅찬 일이다. 담화의 역동성에 걸맞은 언어 직관의 부족이 큰 이유이지만 또 하나 이 분야의 연구 결

- c. What I am doing is teaching him a lesson.  
 d. What he's done is spoilt the whole thing.

실제로 이러한 동사의 강조용법은 생산적인 것은 아니며 또 모든 동사가 다 강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Stockwell(1977 : 158)에 의하면 *what*-분열문은 동작술어(action predicate)는 강조될 수 있으나 상태술어(state predicate)는 강조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 (27) a. John plays the cello.  
 →What John does is play the cello.

- b. John likes music.  
 →\* what John does is like music.

위에서 동작술어 *play the cello*는 강조될 수 있으나 상태술어 *like music*은 강조될 수 없다. 이러한 제약은 술어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론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와 유사한 제약으로서 *what*-분열문의 강조부분에 오는 NP가 무생물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 (28) a. It was Magruder that leaked it.  
 b. \*Who/What leaked it was Magruder.

*it*-분열문의 강조되는 명사는 무생물이나 (28a)와 같은 생물일 수 있으나 (28b)와 같이 *what*-분열문의 명사는 생물이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제약은 Prince(1978 : 885)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현대 영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본다. 이 문제와 지시물(reference)과 관련된 더 미묘한 문제가 있다.

- (29) What John wants to marry a Norwegian,  
 She  $\left( \begin{array}{l} *has \\ \text{should have} \end{array} \right)$  long hair.

(29)에서 *Norwegian*이 사람이면서도 *what*-분열문의 강조요소가 되는 이유는 특정한(specific) 실존인물이 아니고 불특정한(non-specific) 어떤 자질의 소유자의 의미로서 비인격체적인 의미로 쓰였기 때문인 것이다.

*what*-분열문의 화용론적 특징은 *it*-분열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what*-절은 논리적 전제부분이고 *be*동사 다음에 강조부분이 온다. *it*-분열문과 마찬가지로 전제부분은 구 정보이고 강조부분은 신정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담화상황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30) A : I can't understand what you mean.  
 B : What I mean is……

- (31) a. What we're going to look at today is……  
 b. \*What one of my colleagues said this morning was……

(30)의 화자 B의 *what I mean*은 화자 A의 대화에 이미 나온 구 정보이고 신정보는 *is* 다음에 온다. (31a)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할 수 있는 담화로서 *what*-절도 신정보이고 *is* 이하도



신정보이다. (31b)는 강의 시작이라는 상황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what*-분열문은 부자연스럽다. 다음은 Prince(1978 : 888)에 나오는 예이다.

- (32) a. Hi/ My name is Ellen.  
b. \*Hi/ What my name is is Ellen.

(32a)가 좋고 (32b)가 나쁜 이유는 바로 인사(greeting)라는 즉흥성에 비추어 *What*-분열문은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32a)의 적절성과 (32b)의 부적절성도 바로 담화상의 개연성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 4. *it*-분열문과 *what*-분열문의 관계

변형문법으로 대표되는 현대 언어학의 언어 이론의 설명력에 대한 강한 집착은 유사한 표면구조를 가진 여러 문장을 단일 심층구조로부터 유도하고자 하는 수많은 변형이론과 이에 따르는 변형규칙을 생산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은 분열문의 연구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Prince(1978 : 884)에 따르면 Akmajian(1970)은 *it*-분열문은 WH-분열문으로부터 도출된다고 제안하였고 Higgins(1971)는 *it*-분열문이 기저부에서 생성된다고 주장하였다. Hankamer(1974)와 Pinkham과 Hankamer(1975)는 *it*-분열문은 비분열구분으로부터 도출되고 WH-분열문은 기저부에서 도출된다고 주장하였으며 Gundel(1977)은 *it*-분열문을 우측으로 이동된 WH-분열문의 축약형으로 보았다. 최근의 Chomsky 언어학에서 변형이 모두 사라진 것과 비교해 볼 때 격세기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70년대 초에 변형이론에 집착했음을 보여준다. 물론 변형이론의 대전제는 관련 문장간의 의미의 유사성이다. Akmajian(1970 : 149)은 *it*-분열문과 WH-분열문이 의미가 유사하고 같은 전제를 가지며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되므로 일반적으로 그들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반론은 Prince(1978)에 의해서 시도된다. Prince(1978 : 884-885)는 두 구문간의 통사 및 의미론적 차이점을 지적하고 궁극적으로는 Prince(1978 : 886-905)에서 두 구문의 담화상에서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주장함으로써 두 구문의 관련성에 대한 변형이론적 설명의 허구성을 논박하고 있다. 우리는 분열문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하여 *it*-분열문과 *what*-분열문 간의 변형이론적인 설명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검토하고, 또 Prince(1978)의 담화상의 *it*-분열문과 *what*-분열문의 용법에 대한 논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t*-분열문과 *what*-분열문이 단일 심층구조로부터 도출되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몇가지 기준에 의해서 검증해 보기로 하자. 첫째, 통사 및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는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it*-분열문이 두문장이 병렬관계(parataxis)인데 반해 *what*-분열문은 주종 및 수직관계(hypotaxis)이며 *it*-분열문의 일반적 연결사 *that*이 관계대명사가 아닌데 비해 *what*-분열문의 *what*는 명백한 관계대명사이며 강조구문으로 나타나는 문법요소는 *it*-분열문이 NP, ADV, PP인데 비해 *what*-분열문은 NP, VP, S로서 공통되는 요소는 NP인데 이 NP도 *what*-분열문에서는 무생물이어야 하는 제약이 있다. 두 구문간의 유일한 통사적 유사점은 한 문장이 *be*동사를 중심으로 강조부분과 전제부분으로 양분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통사상의 변형이론은 설명력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

다. 둘째, 두 구문간에 의미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가? 사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생물의 NP의 강조만이 두 구문이 일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외의 많은 문장이 그 비교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다만 무생물의 NP가 강조요소인 두 구문사이에는 의미의 동일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요인은 바로 전제의 일치이다. 그러나 이 논리적 전제는 화자의 실제 사용과는 무관함을 우리는 지적한 바 있다. 셋째, 화용론적인 유사성은 있는가? 이점도 역시 비교대상이 존재하는 무생물의 NP가 강조요소일 때에 국한된다. 이 문제는 Prince(1978)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의 결론은 두 구문의 화용론적 용법이 완전히 다르다고 내려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더 언급하기로 한다. 끝으로 두 구문간의 변형규칙이 간결한가? 앞서의 논의로 보아서 또 *it*, *that*, *what*의 이질성으로 보아서 이 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같은 일반조건에 비추어 *it*-분열문과 *what*-분열문의 관계를 변형적으로 보려는 입장의 어려움은 심각한 것이다.

Prince(1978)는 *it*-분열문과 *what*-분열문(그의 WH-cleft)의 담화상의 차이점을 전제부에 올 수 있는 요소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함으로써 증명하고자 한다. 그는 실제의 담화를 대상으로 하여 토박이의 직관에 크게 의존하면서 담화의 응집력(coherence)까지 고려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그는 *what*-분열문의 *what*-절에는 주어진 정보(given information)가 오고 *it*-분열문의 *that*-절에는 알려진 정보(known information)가 온다고 주장한다. 주어진 정보란 그에 의하면 “협조적인 화자가 청자의 의식속에 적절하게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알려진 정보란 화자가 사실로서 또 어떤 사람에게(흔히 청자와 관계없이) 이미 알려진 것으로서 나타내는 정보”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의 구정보는 그에게는 given이 아닌 known이다. given은 언어적 및 비언어적 화맥과 화행의 상황에 의존적인 반면, known은 화자—청자의 관련성이 적고, 화자가 객관적 사실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우선 Prince(1978)의 주장이 매우 막연함을 느끼게 된다. 그 이유는 청자는 의식 안에 존재하는 지의 화자의 가정이라는 개념과 사실성(factuality)의 척도가 실제 대화에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또 given과 known이 우리의 중요한 개념인 신정보, 구정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도 단순치 않다. 우리는 이미 강조부분이 신정보이고 전제부분이 구정보라는 등식을 부정하였다. 담화 속의 정보가치의 최우선 결정 요인은 신정보인가 구정보인가의 여부이며 그 다음은 화자가 강조하려는 요소가 정보가치를 결정한다고 우리는 본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도 어떤 청자나 어떤 상황에서는 전제부분이 아닌 강조부분에도 나올 수 있음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Prince(1978)가 전제부에 어떤 정보가 오느냐 하는 기준에 의해서 *it*-분열문과 *what*-분열문의 차이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같다. 더구나 그는 *what*-절이 주어와 아닌 보어의 위치에 온다면 그의 앞의 주장과는 달리 given이 아니고 known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라 우리는 앞절에서 밝혔듯이 *it*-분열문과 *what*-분열문의 화용론적 용법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결론짓는다. 다만 *it*-분열문이 기술적이고 설득적인 담화에서 더 잘 쓰인다고 볼 때 화자의 객관적 태도가 반영된 듯 하고 *what*-분열문이 좀 더 상황에 의존적이고 화자—청자간의 관계가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화자의 주관적 태도가 더 깊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관찰을 토대로 하여 판단해 볼 때 *it*-분열문과 *what*-분열문의 통사적 차이는 매우 크고 화용

론적 용법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우리는 두 대표적인 분열문은 동일한 화용론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 적용되는 통사적 분포가 다르다는 면에서 상보적 관계에 있다고 결론짓는다.

#### IV. 마무리글

이제 끝으로 분열문과 관련된 두가지 미진한 부분을 언급함으로써 우리의 긴 문법여행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하나는 *it*-분열문의 *it*의 정체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앞서의 논의에서 *it*는 역행대용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 용법에는 순수한 대용어로 쓰여서 뒤의 내용을 보아야 비로소 *it*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로서 Greenberg(1983: 271)는 예견적 역행대용어(proleptical anaphor)라고 불렀다. 이 경우는 바로 *it*-분열문이 담화의 시초에 등장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역행대용어가 이미 앞에서 언급된 내용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화자는 이미 *it*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뒤의 *that*-절은 앞서의 내용에 대한 추가적 규정(additional identification)의 의미를 가진다고 Greenberg(1983: 271)는 말한다. 이렇게 볼 때 *it*-분열문의 *it*는 위의 두가지 용법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언급하고자 하는 마지막 문제는 분열문이라는 문법장치의 기본동기에 관한 것이다. *it*-분열문과 WH-분열문, *what*-분열문을 비롯한 모든 분열문의 유일한 통사적 공통점은 바로 *be*-동사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렇다면 특수한 통사적 강조구문을 만드는데 *be*-동사가 왜 필수요소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우리가 앞선 논의에서 시사하였듯이 이는 바로 영어의 어순과 *be*-동사의 용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명제의 기본구조는 바로 "A는 B이다"(A is B)와 같은 구조이다. 이때 A는 주제가 되고 B는 강조부분이다. *it*-분열문은 *it*는 A로 나타나고 강조부분은 B로 나타난다. *it*의 실제내용은 앞절과 병렬적으로 연결되는 *that*-절이다. 또한 *what*-분열문에서는 *what*-절이 A가 되고 강조부분이 B가 된다. 강조부분이 A가 되고 *what*-절이 B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일종의 도치현상으로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결국 *be*-동사가 모든 분열문의 전제부분과 강조부분의 연결요소(linking verb)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끝으로 Prince(1978)와는 달리 우리는 *it*-분열문과 *what*-분열문의 화용론적인 용법의 차이가 언어학적 의의를 가질 정도로 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점이 좀 더 명시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이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 Akmajian, A. (1970). On Deriving Cleft Sentence from Pseudo-Cleft Sentence. *Linguistic Inquiry* 1.
- Bolinger, D. (1977). *Meaning and Form*. New York: Longman.
- Crystal, D. (1985). *A Dictionary of Linguistics and Phonetics*. Oxford: Blackwell.
- Curme, G. O. (1931). *Syntax, A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3, Boston, 4: Heath.
- Ek J. A. van & Robat, N. J. (1984). *The Student's Grammar of English*. Oxford: Blackwell.

- Givón, T. (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 Academic Press.
- Greenberg, J. H. (1983). Place, Time, and Discourse Deixis. *Iconicity in Syntax*. Stanford.
- Gundel, J. K. (1977). Where do cleft sentences come from?  
*Language* 53.
- Hankamer, J. (1974) On the Non-cyclic Nature of WH-clefting. *Proceedings of the 10th Regional Meeting*, CLS.
- Higgins, F. R. (1971). The Pseudo-cleft Construction in English, MIT dissertation.
- Jespersen, O. (1933).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London : George Allen & Unwin.  
\_\_\_\_\_ (1909—1949).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I—VII*, Copenhagen.  
\_\_\_\_\_ (1937). *Analytic Syntax*. London : George Allen & Unwin.
- Pinkham, J. & Hankamer, J. (1975). Deep and Shallow Clefts.  
*Proceedings of the 11th Regional meeting*, CLS.
- Prince, E. F. (1978). A Comparison of WH-Clefts and it-Clefts in Discourse. *Language* 54, 4.
- Quirk et al. (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New York : Longman.  
\_\_\_\_\_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New York : Longman.
- Stockwell, R. P. (1977). *Foundations of Syntactic Theory*. New Jersey : Prentice-Hall.
- Zandvoort, R. W. (1965). *A Handbook of English Grammar*. London : George Allen & Unwin.